

전통유산의 융합적 접근에 대한 디자인 사례연구

소반(小盤)을 중심으로

A design case study on the convergence approach of traditional heritage
focusing on soban

주 저 자 : 백승민(Baek, Seung Min)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과정

교 신 저 자 : 이상용(Lee, Sang Yong)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교수
yong03@kookmin.ac.kr

Abstract

As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kitchen furniture in Korea, soban is a small table used to support tableware or eat food. Soba is a cultural heritage closely related to life and culture at the time, and the figurative features of soban's top and legs are traditional heritage with Korean beauty, showing cultural and artistic representation. As a result, today's creators are making soban suitable for modern aesthetics and culture through a variety of convergent reinterpre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xamples of soban reinterpreted through modern convergent approaches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how future soban diversity and values will evolve in the future. In chapter 2,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soban and cultural and artistic representation as a traditional heritage, and investigates the examples of soban reinterpreted as a method of convergence of new materials. In chapter 3, classifies and analyzes the cases of soban reinterpreted centering on the fusion of materials by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fusion method, and based on this, it presents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soban as the possibility of genre change, artfurniture, and the possibility of soban design in the post-corona er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in the direction of creative develop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era, inheriting traditional culture in the future convergence design of soban.

Keyword

Soban(소반), Heritage(전통유산), Convergence(융합), Material(소재), Design(디자인)

요약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주방가구로서 소반은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을 말한다. 소반은 그 당시 삶과 문화로 긴밀하게 연관된 문화유산으로서 소반의 모습을 통해 당시 조상의 삶과 행동을 유추할 수 있고, 소반의 상판과 다리의 조형적 특징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여실히 들어난 전통 유산으로서 문화적, 예술적 대표성을 띄고 있다. 이에 오늘날 창작자들은 소반을 다양한 융합적 재해석을 통해 현대의 미감과 문화에 적합한 소반을 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적인 융합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된 소반의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의 소반의 다양성과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 소반의 특징과 전통유산으로서 문화적, 예술적 대표성을 분석하고, 신소재의 융합방법으로 재해석된 소반의 현황을 조사한다. 3장에서 오늘날 재료의 융합을 중심으로 재해석된 소반의 사례를 그 융합방법에 따라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 소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장르의 변화의 가능성, 아트퍼니처로서의 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반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의 소반의 융합디자인에 있어 전통 문화를 계승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조적인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소반(小盤)

- 2-1. 소반의 특징
- 2-2. 소반의 대표성
- 2-3. 융합적 접근의 현황

3. 소반 융합디자인

- 3-1. 융합사례의 필요성
- 3-2. 소반 융합디자인의 현황
- 3-3. 소반 융합디자인의 미래

4.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유산이란 사전적 정의로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대의 문화적 소산이다. 과거의 유산을 당시의 방식으로 재해석 하는 행위는 예부터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은 꾸준한 과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해낼 수 있음에 따라 당시 사람들의 욕구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특히 소반은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소반은 과거 지역마다의 기후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적합한 디자인과 제작기술로 만들어진 전통공예로서 독창적인 다리 모양과 섬세한 장식들을 통해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소반의 가치와 조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현대 디자이너 및 공예가, 예술가들이 다양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전통 소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반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현대적 융합의 대상으로서 소반의 대표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오늘날 전통적인 소재와 기술에서 벗어난 이종과 이질의 융합방식으로 재해석된 소반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창작물로서 그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것의 긍정적인 발전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오늘날 전통 유산에 대한 융합적 접근과 재해석의 대상으로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소반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에 활용되는 융합적 접근법과 그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2장에서는 전통 유산으로서 소반의 특징과 가치를 문헌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현대적 재해석의 소재로서 소반에 대한 문화적 대표성 및 예술로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다음으로

참고문헌

재료의 융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현대 소반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재료의 융합방식에 대한 유형과 경향을 소개하고, 선행연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시된 현대소반을 분류하여 분석한다. 앞선 사례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전통유산의 현대적 재해석의 사례와 연계하여 소반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고, 창조적인 다양성과 가치가 앞으로 어떤 발전을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기대해보고자 한다.

2. 소반(小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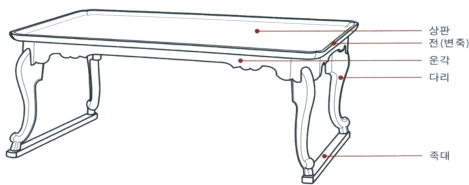
2-1. 소반의 특징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주방가구로서 소반은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을 말한다. 소반의 생김새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다양한 생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소반은 현대의 입식 생활에 적합한 식탁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그 높이가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높이로 보여 과거 조상들은 입식생활이 아닌 좌식생활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 제도에 의한 사회와 가정의 위계질서를 중요시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상을 쓰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상을 사용했다는 점을 소반의 크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전통 주거의 구조 상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과 식사하는 공간, 신분과 위계에 따라 구성원이 각자가 머무는 공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을 나르기 편하도록 그 크기와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1]의 품속화 속에서 등장하는 소반의 모습을 통해 그 특징과 쓰임을 알 수 있다.

[표 1] 소반의 형태와 기능에 의한 사용모습

분류	사용 모습	내용
생활		좌식생활문화의 영향으로 무릎을 꿇거나 가부좌(跏趺坐)자세를 한 상태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소반은 이에 적합한 높이와 크기로 제작되었다.
식사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러 사람이 한 상에 모여 식사하지 않고, 각자 독상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소반의 크기는 한 사람만 사용하기에 적합했다.
운반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과 먹는 공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소반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었다.

또한 소반의 종류는 산자 형태에 따라 명칭과 구조가 다양하다. 각 지역은 그 지방 특유의 수목과 생활양식에 따라 그 지역만의 개성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중 제작 기교면에서 지역의 특색이 두드러지는 것은 통영반(統營盤), 나주반(羅州盤), 해주반(海州盤)이 대표적이다. 상판의 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8각·12각·장방형·4방형·원형·반월형(半月形)·연엽형(蓮葉形)·화형(花形) 등으로 분류되며, 다리 모양에 따라 구족반(狗足盤)·호족반(虎足盤)·죽절반(竹節盤)·단각반(單脚盤) 등으로 불린다.¹⁾ 다음 [그림 1]²⁾은 소반의 기본 구조 및 명칭이다.



[그림 1] 소반의 기본 구조 및 명칭

2-2. 소반의 대표성

소반은 현대의 부엌가구인 식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국의 전통 가구이다. 이처럼 소반의 주된 기능은 식반의 기능으로 매일 사용해야하는 생필품으로서 당시

조상들에게 가장 편리한 형태와 구조로 제작되어야 했고, 오래 사용해도 변함이 없어야 했던 공예품이었다. 이는 한국 전역에서 발달한 소반의 상판 크기와 높이가 큰 차이가 없이 발달했다는 것에서 당시 소반의 형태는 조상들의 생활과 쓰임에 있어 최적화되어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음식이 담긴 식기를 올려둔 채로 부엌에서 사랑방까지 이동하였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는 필수적이었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부식을 방지하고자 쇠뿔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의 특성 상 틀어짐을 막기 위해 견고한 짜맞춤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소반 천판의 평균 높이가 30cm 미만³⁾으로 당시 조상들의 평균 신장 조건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있었으며, 넓이는 천판 위에 놓이는 그릇들의 총 지름과 출입문의 넓이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처럼 하나의 소반 속에는 과거 조상들의 문화와 삶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⁴⁾

또한 소반의 조형적 특징에서도 문화유산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반은 좌식생활을 위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조의 비율에서 다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물의 다리 및 식물의 형태를 아름답게 조각 장식하여 호족, 마족, 구족 등의 호랑이, 말, 개 등과 같은 동물다리 형태와 국화, 당초, 대나무, 꽃 등의 식물의 모양을 아름답게 조각하며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였다.⁵⁾ 이처럼 소반의 문화적 가치와 조형적 특징의 우수함으로 오늘날 창작자들에게 소반은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될 가치가 있는 전통 소재로서 여겨지고 있다.

2-3. 융합적 접근의 현황

소반의 융합적 접근에 대한 배경은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 의식과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라는 두 의식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과학의 발전과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한 소반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대중의 관심을 이끌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반의 가치는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 모습이 소반의 디자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과거의 좌식생활은 입식생활로 바뀌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의 변화를 바탕으로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소반(小盤)). (2021.8.17). URL: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86%8C%EB%B0%98&ridx=0&tot=11>

2) 김희수·김삼기. 민속유물 이해 I - 木家具. 국립민속박물관. 2003. p.542.

3) 정현미. 반(盤) 문화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4. p.8.

4) 최공호.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 p.40.

5) 문선옥. 전통가구의 다리와 발 스타일 용어 연구 - 한국 및 서구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v.21. no.1. p.88.

패스트가구⁶⁾와 아트퍼니처의 등장. 과학의 발전으로 나무라는 재료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과 제작기술의 발전 등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전통 소반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계승하여 새로운 쓰임과 현대적 미감을 부여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소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는 교차, 섞임, 침투, 융해, 융복합 등 융합의 논리를 근간으로 재해석의 과정에 있어 동질과 동종의 결합 및 개선 보다 이질과 이종의 경우에 융합디자인의 측면에서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⁷⁾

[표 2] 소반의 융합적 접근 사례

분류	제작자	내용	특징
나무	이정훈	YANG B A N SOBAN	 ·전통 장신구인 갖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테이블용 소반디자인 ·갓끈을 금속 장식으로 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함
플라스틱	하지훈	B a n clear(blue)-hojok	 ·가벼우며 녹슬지 않고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반 제작 ·OEM 생산방식을 활용한 제작과정 현대화
바이오 플라스틱	류종대	D-SO BAN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과 공예가 합쳐진 '디지털크래프트' 소반 제작 ·친환경플라스틱을 활용한 3D프린팅 제작 방식 적용
알루미늄	하지훈	palace lounge	 ·소반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라운지 의자로 재해석한 디자인 ·전통적인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능의 소반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

6) 패스트가구: 싸게 사서 쉽게 버리는 가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1~2년 정도 짧게 사용한 후 부담 없이 처분한다는 의미다. 패스트퍼니처[네이버 지식백과]. (2021.9.11).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5378&cid=43667&categoryId=43667>

7) 하은하. 신기술과 공예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 창작의 가능성.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5, 2016.9. p.467

섬유	전보경	아기자기 시리즈	 ·다채로운 색상의 색실을 활용하여 섬유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소반을 제작
철	박보미	Afterimage_Soban	 ·현대 철골구조를 활용하여 구조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아트퍼니처로서의 소반 오브제
금속	고정호 x 탐킨	철제공고상	 ·디자이너와 제조업의 사회적 상생협업의 프로젝트를 통한 소반 제품 ·금속 가구를 용접이 아닌 풀딩방식과 나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조립 가능하도록 제작
도자	김별희	도자기 소반 위머	 ·소반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위머 제작 ·다과상, 찻잔 등 다양한 다도구로 응용하여 제작
기타	FIXUPCYCLING	Table 270	 ·폐오일드럼통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소반디자인

[표 2]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소반은 현대 소재와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반을 새롭게 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현대적 소재로서 플라스틱은 가공의 용이함과 생산의 편리함, 그리고 다양한 색상 표현에 있어 자유로움으로 전통유산의 현대화라는 담론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재료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소재를 가장 활발히 응용하고 있는 '하지훈' 디자이너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등 소재의 제한 없이 다양하게 응용하고 이를 전통 소반의 조형적 특징을 재해석하여 현대의 미감에 걸맞은 가구디자인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4차산업시대의 ICT융복합 기술과 공예의 결합으로 3D프린트를 활용하는 '류종대' 디자이너, 작가의 가치와 의도가 담긴 예술적 조형물로서 오브제로서 역할을 하는 아트퍼니처로서 소반을 재해석하는 '박보미' 작가, 쓰레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적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하는 업사이클링 아트로서 소반을 모티브로 폐오일드럼통을 활용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FIXUPCYCLING' 등 오늘날 소반을 모티브로 창작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이너와 공예가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새로운 소반의 아름다움과 쓰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소반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창작자들 또한 더욱 다양한 융합적 접근을 통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며 현대적 기술과 문화가 접목된 소반을 새로운 기술과 소재의 융합이 중심인 융합제작방법의 활용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징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3. 소반 융합디자인

3-1. 융합시대의 필요성

문화 창작에 있어 동양의 중요한 방법론인 법고창신(法古創新)은 그 사전적 의미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創造)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根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⁸⁾ 점점 시대 변화의 주기는 빨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인간의 가치관과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함에 있어 현대적인 가치, 배경, 요구에 부합한 창조는 현대 문화 창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전통 소반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에 의해 꾸준히 재해석 되고 있다. 현대 창작자들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소반의 재해석의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통 소반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신소재와의 융합이 대표적이다. 기존 소반의 사용되는 부재는 목재로서 행자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피나무, 팽나무, 가래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목재를 사용하며 마감 칠을 옷칠 또는 기름칠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⁹⁾ 하지만 기존의 소재로서 목재는 가공이 까다롭고, 원자재의 값이 비싸며, 벌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에 환경문제가 따라왔다. 현대에 들어 실용성과 대량생산은 산업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목재보다 가공이 굉장히 쉽고, 가벼우며, 경제적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합판, 철판, 플라스틱, 알루미늄 같은 현대적 소재의 등장으로 소반 창작에

있어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제작자의 사회적 책임 및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제품의 지속가능성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예를 들어, 폐목재, 재활용품, 쓰레기,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듯 과학의 발전과 시대 가치의 변화에 따라 전통 유산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융합적 접근을 시작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소반이 갖고 있는 기능이 현대에 맞게 개선되고, 식반이라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현대식 테이블, 조명, 의자, 스톨, 오브제 등 다양한 기능의 가능성을 내포한 기능의 융합으로 확장된 현대 소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융합적 발전으로 사용자는 전통 소반의 가치를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주거 공간 및 인테리어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의 소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제작 공정의 현대화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소반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소반의 대중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통의 현대화라는 담론 아래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을 현대적으로 이루어낸 사례로서 대중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향상시키며 사회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과 기업의 창출과 작가 및 디자이너의 등장 같은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3-2. 소반 융합디자인의 현황

본 연구는 이질과 이종의 융합의 논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된 소반의 융합 유형을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소반에 활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목재,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판, 금속이고, 이외에 도자, 아크릴, 섬유, 폐기물 등이 있다.

현재 소반에 활용되는 신소재의 융합적 접근방법의 유형은 첫째,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는 방법. 둘째, 현대 소재의 융합으로 새로운 소반을 만드는 방법. 셋째,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공기술과 재료를 활용해 소반을 만드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2.1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소반의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는 가장

8) 문학비평용어사전(법고창신)[네이버 지식백과].

(2021.8.17).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096&cid=60657&categoryId=60657>

9) 최공호,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 p.33

일반적인 융합적 접근방법이다. 목재의 종류에 따라 느껴지는 각각의 독특한 자연 본연의 색과 나뭇결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소반을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중요한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통 소반에서 느껴지는 기존의 매력과 타소재의 병치는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서 손색이 없을뿐더러 기존의 소반의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현대의 쓰임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하지훈 디자이너의 소반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가구 디자인들은 목재와 현대적 소재인 알루미늄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있다. 이정훈 작가의 Yang Ban은 전통 소반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전통 모자인 갓의 끈 장식을 금속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미감의 장식적 요소를 더했다. 김현수 작가의 '유리소반'은 문창살의 모양에서 모티브로 가져와 나무다리를 구성하였고, 상판을 유리로 대체하여 현대적인 소반 테이블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융합적 접근방법의 장점은 전통적 소반에서 느껴지는 목재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현대적인 소재의 병치로 오늘날 주거 공간의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작 된 가구들은 목재로만 제작된 전통 소반보다 실용성에 있어 상당히 개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작 과정에 있어 어려운 목재의 공정 과정과, 형태와 기능 면에서 전통 소반의 조형적, 기능적 틀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거의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표 3]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분류	내용	특징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나주소반(하지훈) ·목재와 알루미늄의 병치 ·하지훈 디자이너와 무형문화재 김춘식 소반장과 협업을 통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Yang ban(이정훈) ·목재와 금속의 병치 ·갓을 모티브로한 소반. 갓 끈을 금속으로 형상화한 것이 특징
		·유리소반(김현수) ·목재와 유리의 병치 ·문창살을 모티브로 하부를 제작

3-2.2 현대적 소재를 통한 융합

소반을 제작하는데 있어 재료를 목재가 아닌 현대 소재를 선택하여 새로운 미감과 확장된 기능의 가능성을 선보인 융합방법이다. 현재 소반에 활용되고 있는 현대적 소재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재, 금속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재들은 목재보다 가볍고, 경제적이며, 가공이 쉽고, 대량생산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훈 디자이너의 Ban clear는 플라스틱의 종류인 폴리 카보네이트를 활용한 소반으로 디자인과 제작의 분업이라는 현대식 제작공정을 보여주며, 뛰어난 내구성과 내열성 및 오염에 강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Palace lounge는 소반을 모티브로 알루미늄을 이용한 라운지 의자로 가공이 쉽고, 내구성이 강한 특징을 활용해 여러 사람이 앉아 쉴 수 있는 넓은 의자를 제작하였다.

금속공예가 정산은 금속을 활용하여 소반을 모티브로한 티웨어 '트라이반'은 미니어쳐 소반의 모습인 트레이, 소반의 다리의 조형성을 모티브로한 커피 드리퍼와 스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가공이 간단히 쉬운 현대적 소재를 통해 전통 소반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형적 해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졌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식반의 기능을 넘어 의자, 티웨어, 조명, 악세사리 등 확장된 기능으로서 소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현대의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의 가치관이 점점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제작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관심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가구제작에 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금속 등은 사용이 지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업사이클링(Upcycling) 디자인이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미비하다.

국내 업사이클링 디자인 업체인 FIXUPCYCLING은 폐오일드럼통을 재활용하여 소반의 조형성을 모티브로한 테이블 제작하고 있다. 또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선행연구로서 버려진 폐고가구를 재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조명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디자인으로서 소반을 디자인 한 성탄 디자이너의 Newtro Series 07,08이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대응하는 재료의 활용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바탕이 된 새로운 해석들이 전통 문화유산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다.

[표 4] 현대적 소재의 융합

분류	내용	특징
현대적 소재의 융합		·Ban Clear(하지훈)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활용 ·뛰어난 내구성, 내열성
		·Palace lounge(하지훈) ·알루미늄 하부와 가죽커버 ·여러 사람이 이용가능한 공용 라운지 의자
		·트라이반(정산) ·금속을 활용한 티웨어

3-2.3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

전통문화유산의 제작방법은 시대의 흐름이 발맞춰 수작업에서 산업화를 거쳐 기계화, 자동화·디지털화 과정의 흐름을 거치고 있다. 이 중 오늘날 가장 눈에 띄게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컴퓨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자동화 제작방법이 대표적이다. 백은 디자이너의 Reflection은 목재를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가공을 활용하여 제작방법을 현대화하고, 공정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하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전통 소반의 가치와 조형성을 계승하며 현대적 미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류종대 디자이너의 D-soban은 상판은 목재로, 하부는 옥수수전분을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인 PLA(Poly Lactic Acid)를 활용하여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수공과 디지털을 결합한 소반이다. 라미네이션 코팅 기술 전문 회사 라미나는 피그먼트프린팅과 라미네이션 기술을 통해 다양한 디자이너의 패턴장식을 활용하여 페이퍼 또는 아크릴글라스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통 자개소반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업이다.

이처럼 현대기술을 활용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짧은 제작기간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다양한 디자인의 현실화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선 다른 방법들에 비해 경제적이며, 디자인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며 제작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반의 대중화를 이끌며 새로운 미래 소반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방법이다. 하지만 편리한 제작 공정에 앞서 고가의 가공설비와 설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개인적인 설치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설비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수적인 점에 비해 아직 적극적인 교육과 연구 사례가 미비하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보완점이다.

[표 5]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

분류	내용	특징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		·Reflection(백은) ·CNC가공을 활용한 목재소반
		·D-soban(류종대) ·3D프린팅과 PLA소재를 활용한 소반
		·라미나 자개소반(라미나) ·아크릴글라스에 피그먼트프린팅을 활용한 패턴디자인 ·라미네이팅기술을 활용한 코팅

3-2.4 소반 융합디자인의 현황

본 연구는 재료의 융합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소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반 융합디자인의 사례를 선행연구(학술연구정보원에 2010~2021까지 등록된 학술, 학위논문)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소반을 선정하여 앞선 3가지 분류를 통해 경향을 살펴 보았다.

[표 6] 소반 융합디자인의 현황 분류

1.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2. 현대적 소재를 통한 융합 3.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

사진	내용	분류 방법		
		1	2	3
	table270		○	
	afterimage_soban		○	

	table270		○	
	afterimage_soban		○	
	agijagi mini series	○		
	angle series soban		○	
	ban alu	○		
	ban clear		○	
	ban easy		○	
	ban lounge		○	
	ban side		○	
	ban	○		
	cicle soban			○
	d - soban			○
	floor clock	○		
	hojok ban	○		
	hojok chair	○		
	hojok series	○		
	ilju ban		○	
	Karim Rashid Tabel		○	
	kiri		○	
	mp soban	○		
	naju chair		○	
	newtro series08			○
	palace lounge		○	
	pittsburgh series		○	

	reflection			○
	round ban		○	
	soban - 윤종훈			○
	transparent soban		○	
	yang ban	○		
	라미나 자개소반			○
	반경	○		
	반월반		○	
	소반 - 김태환	○		
	오월문 팔각소반3			○
	월넛 소반 트레이	○		
	유리소반	○		
	잔치 소반 체인 목걸이		○	
	철제공고상		○	
	청화 나주반	○		
	캠핑용 소반		○	
	트라이 반		○	
	호족반 테이블 램프			○

오늘날 융합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된 소반 사례를 총 42점을 선정하였고,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가 14점(33%), 현대적 소재를 통한 융합이 20점(48%),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이 8점(19%)으로 분류되었다.

현대적 소재를 통한 소반의 융합디자인이 가장 많은 사례로 보이는 원인으로는 신소재의 개발과 가공기술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소반의 가치를 계승하며

새로운 창작으로 유입되도록 이끌었고, 기존의 목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소재의 병치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융합디자인이 다음으로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디자인은 이제 막 시작된 융합적 접근방법으로서 아직은 사례가 부족하지만 3D프린트의 발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컴퓨터 기술에 의한 미래 소반의 발전 가능성이 다른 두 방법보다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소반 융합디자인의 미래

오늘날 전통 소반의 문화적 가치와 조형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하는 목적아래서 다양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소반은 재해석되고 있다. 그 중 재료의 융합을 활용한 소반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문화와 생활에 맞게 기능의 개선, 재료의 현대화, 제작공정의 현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소반의 융합디자인 발전에 있어 취해야 할 방향은 첫째, 식반 또는 탁자의 기능을 벗어난 다양한 장르의 소반. 둘째, 전통 소반의 조형적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는 디자인의 지양. 셋째,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배경과 문화에 발맞춘 디자인의 진화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서 전통을 활용한 현대의 융합디자인의 사례들과 연계하여 소반의 미래 융합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반의 기본적인 기능을 벗어나 조형적 특징을 모티브로 한 재해석의 발전 가능성. 둘째,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제작자의 가치와 의도가 담긴 예술적 오브제인 아트퍼니처로서의 발전 가능성. 셋째, COVID-19의 발병으로 팬데믹(pandemic)을 경험한 세계 속에서 앞으로 생활 방식의 변화를 예견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소반디자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3.1 새로운 장르의 발전 가능성

현재 재해석된 소반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식반, 탁자 나아가 테이블의 기능을 가진 가구의 범주에서 해석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전통의 현대화라는 과제 안에서 자주 보이는 한계이며, 이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 소재의 장르를 색다른 분야로의 탈바꿈을 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의 전통적으로 마감재의 역할을 하던 옷을 그 물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器)의 형

태로 구현하는 박성열 작가, [그림 3]의 프로젝션 매핑 기법(projection mapping)으로 전통 공예품인 도자기와 고가구를 다양한 패턴의 빛과 사운드, 움직임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김혜경 작가가 있다. 이처럼 소반에서도 새로운 장르로의 발전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4]의 나주반 다리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의자를 디자인한 하지훈 디자이너, [그림 5]의 자개소반의 상판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전통적, 현대적 패턴을 활용하여 핸드백을 디자인한 조명희 디자이너가 있다.



[그림 2] 전통 장르의 변화
〈본연OTT001〉
박성열



[그림 3] 전통 장르의 변화
〈미디어와유〉
김혜경



[그림 4] 소반 장르의 변화
〈naju chair〉
하지훈



[그림 5] 소반 장르의 변화
〈MP SOBAN〉
조명희

이처럼 소반은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활용가치가 뛰어나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 또는 디자이너마다 전통 소반의 가치를 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재해석의 방법 또한 다양하기에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장르를 통해 현대적 쓰임의 소반의 등장과 함께 대중화를 기대할 수 있다.

3-3.2 '아트퍼니처'로서 발전 가능성

아트퍼니처(Artfurniture)는 '예술로서의 가구', '가구로서의 예술'이라는 개념으로서 장식예술(decorative arts)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던 분야이다. 이후 예술과 디자인의 융합장르로 재조명되면서 독립된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하였다.¹⁰⁾ 국내에서도 아트퍼니처는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적 요소를 활용

한 아트퍼니처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림 6]의 고무 끈을 활용하여 한옥의 문창살과 색동 현대적으로 풀어낸 아이를 위한 수납장인 소은명 디자인의 'The line'. [그림 7]의 전통 수납장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렌티큘러 아크릴을 활용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꽃무늬를 통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김상윤 디자인의 'Bloom' 등이 있다. 이처럼 전통 소재를 활용한 아트퍼니처의 사례처럼 소반의 가치와 조형적 특징 또한 충분한 활용 가능성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8]의 소반과 전통 건축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잡'이라는 개념을 담아 현대 건축의 수직·수평의 철골구조를 바탕으로 소반을 아트퍼니처로 재해석한 박보미 작가의 'Afterimage_Soban'. [그림 9]의 세계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불투명성'을 아트퍼니처로 구현한 것으로 레진과 다크나무 종이를 활용하여 소반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손상우 작가의 'kiri'¹¹⁾가 있다.



[그림 6] 전통
아트퍼니처
〈The Line〉
소은명



[그림 7] 전통
아트퍼니처
〈Bloom〉
김상윤



[그림 9] 소반
아트퍼니처
〈Afterimage_Soban〉박보미



[그림 8] 소반
아트퍼니처
〈kiri〉
손상우

이처럼 소반은 독특한 조형적 표현을 통해 작가의 의도와 가치에 담긴 현대 예술품으로서 뛰어난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조형성, 예술성, 희소성이 뛰어난 아트

10) 최병훈·김도훈. 아트퍼니처(Artfurniture)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015. v.26. no.2. p.102.

11) 명상(冥想)과 같은 정신적 소통의 사물[magazine artmine]. (2021.8.17.). URL: <https://www.magazineartmine.com/>

퍼니처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3-3.3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소반디자인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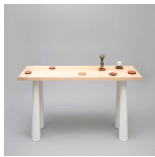
2020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COVID-19의 발병으로 팬데믹(pandemic)을 경험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과 문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키워드는 사람간의 비대면·비접촉인 '언택트(Untact)'이다.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재택근무, 원격교육, 여가활동 등 집 안에서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워크¹²⁾의 개념이 각광받고 있고, 그 핵심은 간단한 움직임이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이며, 기존의 스마트 워크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었다면, 코로나 이후의 적합한 업무형태는 한정된 공간. 즉, 홈 오피스라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워크 개념은 홈 오피스에 적합한 가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현대 소반은 테이블, 의자, 사무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하게 홈 인테리어 상품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시대와 대중들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그 기능과 디자인의 진화를 이룬다면 그 가치는 더욱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10]처럼 오늘날 소반을 활용한 홈 오피스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의 조형적 표현이 현대 인테리어 가구로서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반의 조형적 특징을 살리는데 많은 집중을 하여 기능적 요소들이 홈 오피스 가구로서 활용성에 대해서는 기성 제품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다목적'으로 효율과 사용성 극대화라는 과제를 통해 사용자의 목적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수납공간, 디지털 기기 탑재, 집 안에서의 개인이 근무환경에 맞출 수 있는 모듈화 등의 과제들을 보완하면 이에 따른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¹⁴⁾

12) 스마트 워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를 뜻한다.

스마트워크[네이버 지식백과]. (2021.9.11).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75472&cid=42251&categoryId=51157>

13) 서윤살·김은영. 홈 오피스를 위한 데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Untact 시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20. v.31. no.4. p.362.



[그림 9] 소반
오피스가구
〈지그재그
테이블〉한동업



[그림 10] 소반
오피스가구
〈Kunture〉
피터섬

다음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공예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1]은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 연계 공예문화 향유 프로그램으로 ‘공예가 되기’는 공예작가 14명의 작품 제작 키트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중들이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제작자는 공예 제작 키트와 제작 영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어 공예제작을 몸소 체험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림 12]는 소반 제작키트는 언택트 시대 속에서 창작자는 자신만의 소반을 키트제작을 위해 단순화하고, 제작 가이드라인을 고안하는 새로운 창작 과정이 등장한다. 또한 소비자가 창작자의 소반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그 소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예문화 체험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다양한
공예 제작키트
청주공예비엔날레



[그림 12] 소반
제작키트
퀵지 오브젝트

하지만, 키트 제작에 있어 소반의 조형적 특징에 대한 단순 재현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나친 제작 공정의 단순화는 제작 참여자로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이라 사료된다.

14) 서윤살·김은영. 홈 오피스를 위한 데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Untact 시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20. v.31. no.4. p.370.

4.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다양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재해석된 소반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소반의 다양성과 가치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거쳐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한다. 현재 많은 디자이너, 공예가, 예술가들이 소반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들만의 소반을 창작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 계승과 현대적 가치와 미감의 조화를 적절히 이루어내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소반디자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를 선정하여 오늘날 소반 융합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하였고, 다른 분야에서의 전통과 현대의 융합 방식의 사례들과 연계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오늘날 재해석 되는 소반의 현황을 이종과 이질의 교차, 섞임, 침투, 융해, 융·복합 등의 융합의 논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와 기술의 융합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는 융합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재료인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둘째, 현대적 소재를 통한 융합, 셋째,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소반의 사례를 총 42점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현대적 소재를 통한 융합 방법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목재와 타소재의 병치. 마지막으로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 순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비율의 원인은 신소재의 개발과 가공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유입이 가장 큰 이유라 볼 수 있다. 가장 비율이 낮은 현대기술과 재료의 융합디자인은 이제 막 시작된 재해석의 방법이기때문에 사례가 부족하지만 4차산업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속적인 컴퓨터의 발전으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다른 융합 방법보다 크다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전통을 현대화하는 다른 사례를 통해 미래 소반의 발전가능성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소반의 전통적 기능, 역할에서 벗어난 새로운 장르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마다 전통 소반의 가치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법 또한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소반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제작자의 의도와 가치를 통해 예술적인 오브제 역할을 하는 아트퍼니처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다. 이는 현대예술작품으로서 소반의 회소성과 예술적 가치를 중점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서의 소반의 발전 가능성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이라는 세계

적 재난상황 속에서 집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 중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홈 오피스 가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오피스 가구로서의 소반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점을 통해 미래 가치가 뛰어남을 기대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언택트 상황 속에서 창작자와 소비자가 소반을 제작하고 체험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매커니즘의 등장으로 소반키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통 소반은 조형적 특징만으로도 과거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소반은 전통 소반이 지니고 있는 가치처럼 그 자체에서 시대의 모습과 삶이 그대로 투영된 문화의 산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소반을 활용하여 융합적 접근법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는 미래의 창작자들에게 소반 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김희수·김삼기. 민속유물 이해 I - 木家具. 국립민속박물관. 2003.
2. 최공호. 한눈에 보는 소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8.
3. 문선옥. 전통가구의 다리와 발 스타일 용어 연구 - 한국 및 서구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v.21. no.1.
4. 서윤설, 김은영, 홈 오피스를 위한 데스크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 Untact 시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20. v.31. no.4.
5. 정현미. 반(盤) 문화 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4.
6. 최병훈·김도훈. 아트퍼니처(Artfurniture)에서 예술과 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2015. v.26. no.2.
7. 하은하. 신기술과 공예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 창작의 가능성.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5, 2016.9.
8. <http://encykorea.aks.ac.kr>
9. <https://terms.naver.com>
10. <https://www.magazineartmine.com/>